



## 대학도서관의 참고봉사에 대하여

김 세 익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 I. 대학도서관의 참고봉사에 대한 새로운 이념

도서관에 있어서의 참고봉사의 의미를 다소 확대해서 생각하면 대학도서관의 모든 봉사활동이 참고봉사라야 하며 적어도 참고봉사적이라야 한다. 도서관에 있어서의 봉사활동의 순환과정을 서비스 싸이클(Service Cycle)이란 말로 표현한다면 그 서비스 싸클의 주축(主軸)이 참고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오늘 날 학문분야가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서로 다른 분야와의 상호 연관성 위에서 학문이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기본적인 조직이나 봉사활동이 몹시 전문적이 되고 그 질이나 양이 과거에 비해 방대해 졌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학도서관은 그 대학의 심장(心臟)이란 말을 오래동안 사용해 왔다. 그러나 내가 믿기로는 대학도서관은 그 대학의 심장이라기 보다 두뇌(頭腦)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다. 심장이 멈추면 생물의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뇌가 없으면 사고(思考)할 수가 없다. 대학은 생물이 생존하는 곳이라기 보다 인간이 사고하는 곳이라야 한다. 교수들이나 논문을 쓰는 대학원 학생들이 단행본 보다 전문학술잡지 그리고 참고실 자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생긴 것은 최근 몇해 동안에 도서관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참고실이나 잡지실에 비치된 많은 2차자료, 3차자료에 그 관심이 쏠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도서관의 기본조직인 수서, 정리, 참고, 열람이란 기능이 복합적(複合的)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정보검색은 다만 목록카야드나 서고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전체적 기능에서 복합적으로 찾아져야 한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참고봉사는 다만 참고실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카운터에서 잡지실에서 수서에서도 심지어 정리실에서 까지도 넓은 의미의 참고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까지도 대출같은 데서 참고봉사적인 활동이 전연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새로운 도서관의 이념에서 볼 때 참고실을 주축으로 하여 도서관의 모든 기능이 참고봉사적이라야 하겠다. 우리는 서강대학

도서관에서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실이 인문 사회 자연의 세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참고봉사를 부문별로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라고 짐작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메인 리딩 룸이 커다란 참고실로 변한 것도 대학도서관은 아니지만 리서처치를 중요시 하겠다는 새로운 의욕의 표시라고 짐작된다. 참고봉사의 다른 기능 즉 수서나 정리나 대출 같은 것이 무시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참고봉사적인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다기능(多機能)의 도서관을 지향해야 한다는 뜻이다.

### II. 대학도서관의 참고사서

정규 4년제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도서관에 취직을 해서 갔을 때 그들은 대개의 경우 정리실에서 분류 목록작업에 종사하는 듯 하다. 본인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도서관쪽에서도 으레 그러려니 한다. 도서관에 있어서의 도서 정리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할 수도 없는 말하자면 상당한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정리작업이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던가 도서관업무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이런 고정관념이 많이 시정되었지만 아직도 그런 인습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엄격하게 말하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도서관 업무라는 것은 없다. 수서, 정리, 대출, 참고, 잡지실 다 똑같이 중요하며 각 부처마다 최상의 기능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문제는 가장 유능한 사서가 정리실에 있게 되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도서관업무는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한 것만 가지고는 별로 큰 성과를 올리기 어렵다. 도서관이나 도서관학의 본질을 생각할 때 정말로 유능한 사서는 실무에 종사한 후에도 꾸준히 현장에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미국에서는 도서관학 대학원을 나오고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취직하면 일정한 견습기간 같은 것을 두고 자기가 소속된 부처에 대한 치밀한 오리엔테이션과 트레이닝을 받아야 비로서 사서로 행세하게 된다. 유명한

크리브랜드의 공동도서관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관장을 비롯한 모든 관원이 모여서 세미나를 한다. 여기서 발표되고 토의되는 문제의 수준은 대학원의 세미나 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 같았다. 이러한 계속적인 훈련을 거듭하여 마침내 유능한 사서로 성장해 나간다. 우리나라에는 대체로 이런 형식의 훈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도서관에 멘네리즘 같은 좋지 못한 분위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점을 대학도서관의 참고사서에게 국한해서 생각해 보면 더욱 결실해 진다. 한 주제에 대하여 일가견을 가졌거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나 대학원 학생들의 참고질문에 봉사하고 또 그들의 참고봉사를 해 나가기에는 대학도서관학과를 갓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무리다. 그러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대학원 학생들은 참고실 사서에게 전문적인 사항을 물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만 참고실에 비치된 참고도서를 단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참고사서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는 방법은 없을까.

참고사서는 한 주제에 대하여 교수나 대학원 만큼 깊은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길잡이는 될 수 있다.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참고문헌에 대하여 조사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문헌을 언제나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참고도서의 수가 격증하는 이저음 한 사람의 참고사서에게 모든 주제에 대한 봉사를 요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 내가 믿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참고사서의 수를 도서관 마다 늘리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각 주제별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세분야를 분담해서 담당할 수 있는 세사람의 전문사서가 있어서 충분히 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상당히 큰 대학도서관에서도 참고사서가 혼자서 근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참고실의 T.O는 어느 도서관이건 지금보다는 증원되어야 한다. 참고실 이용자도 얼마 안되는데 무엇보다도 그렇게 많은 참고사서가 필요한가 하는 분도 있겠으나 도서관 봉사라는 것이 또한 때가 있어서 참고사서가 많고 참고도서도 많이 비치되고 참고실 시설이 좋아지면 자연히 참고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이런 것이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참고실을 강화하지 않으면 참고실의 기능은 언제나 저조함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결국 사서라는 직업의 특징은 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소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각종 서지(Bibliography)에 통달하고 있다는 말도 된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서관에 관한 한 변함 없는 사실이다. 다만 근대도서관의 발전에

따라 책이란 말이 자료라는 말로 변했을 뿐이다. 따라서 참고사서라면 결국 참고도서를 비롯한 많은 참고자료에 통달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정보의 홍수시대를 맞이하여 각국의 각종 참고자료가 수 없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유능한 참고사서라면 고된 고역과 작업이 없이는 그 책임을 다 할 수 없다. 사서는 대학에서 충분한 자격을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 종사하면서 연구를 거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능한 사서가 문헌에 통달해야 한다면 대학도서관학과와 카리큘럼에서도 서지나 참고봉사를 더 중점적으로 공부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카리큘럼에서 결코 서지시간이 적은 것이 아니지만 도서관의 발전되어 가는 추세를 볼 때 서지에 더 많은 관심이 쏟렸으면 한다.

### Ⅲ. 참고자료의 체계적 수집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는 상당히 유용한 참고도서가 많이 출판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도서관의 경우 역시 참고실의 자료구성의 추측은 서양책이다. 이런 현상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는 바로는 비록 외국도서의 구입이 여의치 못하다 하더라도 외국참고자료의 구성이 영성한 것 같이 느껴진다. 대학의 성격이나 이용자의 성분에 따라 그 장서구성의 원칙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참고자료의 구성의 원칙과 범위가 미리 설정되어서 바람직한 상태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아무런 객관적인 이유없이 한 주제가 집중적으로 수집되어 있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참고자료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이른바 기본참고도서 수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참고자료는 대개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A. 사전류(辭典類)

철자, 발음, 엑센트, 의미, 용법, 어원 등을 조사하는 사전류가 역시 제일차적으로 수집되어야 하겠다. 우리 나라 말에 대한 사전 같은 것은 가능하면 전부 비치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B. 사전류(事典類)

백과사전, 연감, 인명사전, 인명록, 지명사전 같은 것도 되도록 광범위 하게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 C. 기타자료(2차, 3차 자료포함)

사전류의 수집에 이어 여러가지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상당한 수에 이른다. 학문이 분화되고 참고질문의 질이 세분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출판된 것이 속속 도서관에 들어 올 수 있는 루우트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도

구가 언제나 손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 요컨대 참고자료의 수집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풍토가 도서관에 생길 때 그 도서관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 나라에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IV. 끝맺는 말

대학도서관에서 참고봉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져서 마침내 참고봉사가 대학도서관에서의 봉사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감마저 든다. 대학의 근본 성격이나 과

학 기술의 발전의 양상을 볼 때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에서는 더 많은 인적, 경제적 투자를 참고봉사를 위하여 해야 하며 참고실에 근무하는 참고사서가 이용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도 유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실무에 종사하면서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대학 도서관학과에서도 대학도서관의 참고사서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주기 위하여 그 카리큘럼 편성에 있어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 달의 도서관 역사

7 월

- 목포도서관구락부 설립(1907)
- 대구부립도서관 개관(1919)
- 철도도서관 개관(1920)
- 신장한 경성도서관 낙성식 거행(1923)
- 충북도서관 개관(1924)
- 원산부립도서관 개관(1928)
- 충북부도서관에 부녀자문고를 개설(1935)
- 하계도서관강습회를 충북부도서관에서 개최(1936)
- 제1회 도서관강습회를 부산에서 개최(1939)
- 박희영 역 류이집진분류법(15판 Standard)을 해군사관학교도서관에서 출판(1954)
- 인천시 부평동에 부평자메도서관 설립(1961)
- 강소천 저 아동도서목록을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에서 출판(1962)
- 1일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설립(1948)
- 경주시립도서관 설립(1953)
- 한국사학사범대학도서관 설립(1955)
- 해군대학도서관 설립(1955)
- 국립지질조사소 대전시립소도서관 설립(1956)
- 한국도서관협회 기관지 도협월보(동사판) 창간(1957)
- 덕성여자대학도서관 설립(1958)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에 정릉도서관 설립(1962)
- 4일 ·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공포(각령 제 860호)(1962)
- 5일 · Peabody 교육사절단 주최로 7일까지 경남의 국민학교 도서관담당교사에 대한 아동도서관강습회 개최(1962)
- 7일 · Peabody 교육사절단주최로 11일까지 충남의 작군장학사 및 국민학교 도서관담당교사에 대한 아동도서관강습회 개최(1962)
- 8일 · 청구대학도서관 설립(1950)
- 여주군립도서관 설립(1963)
- 10일 · 천안시립도서관 설립(1957)
- 안동시립도서관 설립(1965)
- 11일 · 국립도서관 임해문고를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월미도에 개설(1949)
- 1961년 2월 1일에 조직한 「마을문고 보급회」를 「마을문고진흥회」로 개칭(1962)
- 14일 · 부산교육대학부속도서관 설립(1956)
- 15일 · 연희대학교 주최로 콜롬비아대학 창립 200주년 기념 「한국의 제지·문자 및 교인쇄문화에 관한 자료전시회」를 15일과 16일 양일간 등교에서 개최(1954)

- 전북교육연구소도서관 설립(1954)
- 진주농과대학도서관 설립(1955)
- 양주군립도서관 설립(1963)
- 17일 · 대한민국학술원도서실과 예술원도서실 설립(1954)
- 강화군립도서관 설립(1963)
- 18일 · 포천군립도서관 설립(1963)
- 부산지구와 경남지구협의회가 종합하여 부산경남지구도서관협의회로 발족(1965)
- 20일 · 육군정훈학교도서관 설립(1954)
- 연천군립도서관 설립(1963)
- 21일 · 국립도서관 임해(臨海)문고를 8월 25일까지 인천월미도에 개설(1948)
- 충남교육연구소도서관 설립(1959)
- 제1회 전국도서관대회를 22일까지 중앙교육연구소에서 개최(1962)
- 소년선도주간을 맞이하여 8월 31일까지 서울중로경찰서 직원들이 「거리의 문고」 설치(1964)
- 22일 · 광주군립도서관 설립(1963)
- 1964년도 경북지구도서관협의회 총회를 대구여자중학교도서관에서 개최(1964)
- 23일 · 양평군립도서관 설립(1963)
- 용인군립도서관 설립(1963)
- 24일 · 국립도서관과 경기도성인교육협회 공동주관으로 수원 아동도서관을 개설 (1947)
-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4일부터 4주간 도서관실무자 강습회 개최(1961)
- 고창군립도서관 설립(1962)
- 25일 · 안성군립도서관 설립(1963)
- 춘천농과대학도서관 장서목록 출판(1963)
- 26일 · 걸라남도 주최로 27일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도서관운영강습회를 전남교육연구소에서 개최 (1963)
- 27일 · 부산교육국 주최로 8월 2일까지 부산시내 국민학교 교사에 대한 강습회를 부산중앙국민학교에서 개최(1962)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8월 10일까지 경기도 안양유원지에 임강문고를 개설(1964)
- 29일 · 부산시교육국 주최로 8월 3일까지 부산시내 국민학교 교사에 대한 강습회를 부민국민학교에서 개최(1963)
- 문교부와 한국도서관협회 공동주최 아시아재단 후원으로 8월 26일까지 부산 및 춘천에서 경상남도 및 강원도지방 사서교사 하계강습회를 개최(1964)
- 아시아재단 후원 문교부 및 한국도서관협회 공동주최로 8월 26일까지 경북지구(대구에서), 충남지구(대전에서), 전남지구(광주에서) 하기 사서교사강습회를 개최(1965)
- 31일 · 부산시교육연구소에서 부산시 각급학교 도서관실태조사보고서 출판(1963)